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콜로키움

일시 | 2012. 10. 19(금) 오후 15: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세부일정

사회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간	내용
15:00 ~ 15:05	참석자 소개 및 콜로키움 진행 안내
15:05 ~ 15:10	환영인사 -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5:10 ~ 16:30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발표 - 후와 카즈히코 Fuwa Kazuhiko (토호쿠대학명예교수 · 쇼케이가쿠인대학교수)
16:30 ~ 16:50	질의응답 및 토론
16:50 ~ 17:00	폐회

목 차

1. 청소년·청년과 커리어교육을 검토하는 시점	
- 학문적 상황에 입각하여	3
2. 커리어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이	4
3. 커리어교육 정책 도입의 배경과 목적	5
4. 커리어교육의 추진사업	8
5. 커리어교육의 성과?	
- 청년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관점에서	15
6. 커리어교육의 과제	20
부록 :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일본어 원고	24

발표



일본 커리어교육 정책의 현장과 과제

- 청년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며 -

후와 카즈히코

(토호쿠대학명예교수 · 쇼케이가쿠인대학교수)

일본 커리어교육 정책의 현장과 과제

- 청년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며 -

1. 청소년 · 청년과 커리어교육을 검토하는 시점 — 학문적 상황에 입각하여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상황이 오늘날의 과제로 주시 되고,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 그 아래에서의 치열한 시장경쟁의 전개가 각 사회의 산업구조, 생산구조와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큰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의 축소화, 직종의 단순노동화, 저변 노동화, 고용형태 및 고용조건의 불안정화 등의 문제 상황 심화를 들 수 있다.

더욱이 논의로 주시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청소년/젊은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 형태로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내용으로는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의 의존적 상황에서 두 가지 의미의 자립, 자율(경제적 자립, 스스로 적절한 사고력, 판단력에 따른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이 가능한 자율스타일을 발전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발달이행이다. 이것이 청소년/젊은 성인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둘러싼 사회적 표준화된 이행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 노동시장에서 출현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젊은 세대를 둘러싼 일련의 고용문제의 확대와 심화는 사회적으로 표준화되어 온 청소년의 직업으로의 종사를 통한 사회적 · 직업적으로 자립적인 성인으로의 발달이행을 어렵게 하고 역으로 발달이행의 불안정화, 지연화, 더욱이 곤란화라고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태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즉, 사회의 성인구성원이 되는 것)을 내발적으로 지향하고 싶어 하지 않은 자기도피자로도 불리는 청소년/젊은 성인의 증가가 지적된다.

이러한 사태의 추세에 대한 주시와 그 일이 청소년/젊은 성인의 성인으로의 발달이행에 미치는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과제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사태는 청소년/젊은 성인의 취업기회 축소,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의 취업조건 불안정화 등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자립의 곤란이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로의 경제적 의존, 그 지속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에서 빈곤화로의 위기적 하강을 초래하고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의 현실적인 곤란이, 그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 요구 수준의 저하를 더해, 자기혐오, 자기 기피 등 “주관적 리스크”의 발생, 더욱이 사회적으로 자립한 인간(성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역할이행을 완수할 수 없고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회적 스티그마(낙인), 사회에서 자기 기피로 물리게 되는 일종의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젊은 성인이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및 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서의 두터운 지원 협력이 필수이다.

청소년/젊은 성인이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성인으로서의 발달이행으로 향하여 진로로 선택하는 직업(일하는 것)으로의 이행 본연의 모습은 그 시대적인 젊은 노동시장의 구조에 기본적으로 좌우된다. 청소년/젊은 성인이 그러한 객관적 현실에 부딪혀있기에 학교가 취학기간을 통하여 교육과정 아래 생도/학생에게 행하는 장래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지도·지원은 경제적, 복지적, 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 이 교육적인 역할을 짊어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커리어교육」이다.

2. 커리어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이

① 「커리어교육」이란 말이 일본의 공적 기관에서 공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중앙교육심의회가 문부 대신에게 제출한 「초등·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결 개선에 대해서」에서였고 1999년이었다. 중앙교육심의회(위원구성 30인 이내, 임기 2년)는 문부과학 대신의 자문에 따라 교육제도,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학교 교육·청소년 교육 특히 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견을 제기한다. 그 내용은 일본의 교육정책입안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커리어교육은 1999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받고, 그 후 2000년대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에 도입, 추진된다.

② 커리어교육의 목표, 활동에 법적 근거가 주어진다. 2006년에 교육기본법이 60년 만에 개정되었고 교육목표의 하나로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결정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2007년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서도 의무교육 목표의 하나로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 및 개성에 따른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명기되었다. 커리어교육은 오늘날의 시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제로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커리어교육 등 추진회의」(2006)가 내각부 청소년 육성 추진 본부 내에 설치된 것에서도 입증된다.

③ 문부과학성은 커리어교육 추진 핵심행정기관으로서 추진에 필요한 조건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에서의 커리어교육 지도방침, 내용, 방법 등의 명시 「커리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협력 회의」(2002)를 설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립교육정책 연구소 생도지도연구센터의 협력을 얻어,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커리어교육 지침서, 팸플릿 작성, 관련 사업기획, 실시, 커리어교육추진 플랜정책 등에 몰두하고 있다.

④ 커리어교육은 교육기본법 개정 및 학교 교육법 개정에서 새로운 교육목표로 도입되어 2008년에 정부가 교육의 종합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지침으로 각의(閣議) 결정한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도 그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본래적으로 교육의 정책화는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각종 심의회에서 협의·제기된 답신을 근거로 문부과학성이 입안, 책정하고 실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커리어교육의 도입과 실시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주어지 정부도 각의 결정에 따라 추진을 지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커리어교육이 일본의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의 시대적인 중요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커리어교육이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된 시기에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회의 설치, 정책 입안, 법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시하고 싶다. 예를 들면, 2003년 문부과학, 후생노동, 경제산업, 경제재정 정책 담당 각 대신으로 이루어진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가 설치되어 「청년자립·도전플랜」(최종목표 연차 2006년 교육·고용·산업정책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재정책으로 정책자원의 중점투입과 그 효율적인 활용, 성과의 최대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인재 대책을 강화하여 프리타 약 200만 명, 젊은 실업자, 무직자 약 100만 명인 상황을 전환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목표이다.)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의 어린이·청년 육성지원 추진법 제정 등이 있다. 모두 청년 취업확보, 그에 따른 경제적 안정, 자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책으로 커리어교육과의 일체적인 접합, 연속성이 불가피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커리어교육의 정책적인 배경과 목표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에 맞춘 취업확보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협의의 해석을 줄 법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이는 커리어교육의 개념, 의의, 내용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향후 논하고 싶다.

3. 커리어교육 정책 도입의 배경과 목적

커리어교육이 일본 교육 정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전술한 1999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초등·중등교육과의 연결 개선에 대해서」이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에 들어와 커리어교육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도입, 추진되었다.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전후 「직업교육」「진로지도」가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21세기로의 이행시기에 새로운 커리어교육을 필요로 한 교육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초등·중등학교와 고등학교와의 연속의 개선에 대해서」는 문부대신에게 받은 자문사항이다. (1) 교육개혁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양자의 교육의 연계 (2)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결을 중시한 대학입학자 선발의 개선에 관한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답신이 커리어교육에 언급된 것은 제 6장 「학교 교육과 직업생활과의 연결」에서 이다. 거기에서는 1990년대에 신규졸업자의 프리타 지향이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달했고, 또한 신규 졸업자의 취직 후 3년 이내의 이직도 신규고졸자가 47%, 신규대졸자가 약 32%(노동자조사)에 달했다고 당시의 신규졸업자의 동향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젊은 층의 동향, 특히 취업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과 직업생활과의 연결의 본연의 모습이 거론되고 양측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연결을 구축해 가기 위해서 「커리어교육(바람직한 직업관·근로관 및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개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소학교 단계에서 발단단계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맥에서도 학교 교육에 커리어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1990년대에 출현한 신규고졸자, 및 신규대졸자의 심각한 취업문제와 그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대책 확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일본 경제의 큰 전환기였다. 1980년대 중반부에 출현한 경기상승·버블이 1990년대 초두에 붕괴되고 일본경제는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여 긴 침체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직면한 경제 위기적 사태는 국가의 경제 정책, 기업경영 등에 구조적인 개혁을 강요하고 고용관행, 직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신규고졸자, 대졸자의 취직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버블경제가 피크였던 1992년에 고교생의 구직자 50만 명에 대해서 구인수는 167만 명을 헤아렸다. 그 후, 구인수는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0년 전 후에는 구직자수를 조금 상회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한편, 대졸자에 대한 구인배율은 1991년 3월에 2.86 배를 피크로, 계속 저하했지만 1.0배를 밑돈 것은 2000년의

0.99배만으로 2005년에는 1.37배까지 회복했다. 2000년 3월 고졸자의 취직률은 93.6%, 전문학교 졸업자 86.3%, 단대 졸업자 88.4%, 대학교 졸업자 92.0%로 학교 졸업 단계에서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이 사태는 그 후 증가세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기 모든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 고용자율은 20%를 넘었고 1990년대 후반을 향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 25%, 2003년 30%에 달했지만 10대 후반에서 71.8%, 20대 43.2%로 젊은 층에서 현저하게 상승했다. 더욱이 젊은 층(15~34세) 사이에서 무직자 60만 명(2002), 프리타 207만 명(2003)으로 증가했다. 또한 신규 졸업자의 높은 이직률이 사회문제로 주시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3년 내에 첫 직장에서의 이직률은 고졸자45%, 대졸자 32%로 약 2~3명 중 1명이 경험했다.

고졸자의 진로를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에서 확인하면 졸업자수는 저 출산의 영향으로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경향에 들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후반에 대학 진학자 59.3만 명이 취업자 58.4만 명을 처음으로 상회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2010년에는 취업자가 16.7만 명, 대학 진학자는 58.1만 명으로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고졸취업자는 장기간에 걸쳐 신규 학교 졸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계속 차지하는 존재였지만 1997년에 대학 졸업자에게 추월당한다. 고교생의 진로선택으로 취업지망자가 감소에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졸자를 둘러싼 취업환경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후 장기간에 걸쳐 침체 상태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증가하는 대졸자에게도 취업환경은 고졸자에 비해 약간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표면화되고 확대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심각화 된 교육, 사회문제인 젊은 층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정부를 비롯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 기업 등의 사업소에 요구된다. 그 하나는 1999년에 중앙교육심의회가 처음으로 커리어교육의 필요성을 문제해결의 방침으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는 회의 설치와 사업 기획, 입안 그리고 정책적인 시설을 착수해 가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이다.

4. 커리어교육의 추진사업

1)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커리어교육 추진의 기본적 시점

중앙교육심의회는 커리어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으로 「특정의 활동과 지도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교육활동(직업교육을 포함한다)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고 「유아기의 교육과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각 학교 단계의 조직을 생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점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① 「커리어 발달은 각각의 어린이, 청년으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커리어 발달을 촉진하도록 치밀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수료하기까지는 생애를 거쳐 다양한 커리어 형성에 공통적인 능력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커리어교육의 목표는 학교 교육의 각 단계에서 설정해야만 한다.

② 커리어교육은 유아기 교육과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초적, 범용적 능력(내용은 전술)을 어린이와 청년에게 확실히 육성함과 동시에 사회, 직업과의 관련을 중시한 실천적, 체험적인 활동을 통하여 일을 하는 의의와 폭넓은 시점에서 직업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지도를 행한다.

③ 또한 어린이·청년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과 학교에서 사회, 직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힘(내용은 전술)을 명확히 하고 학교 교육에서 각 교과, 과목이 역할로서 담당하는 커리어교육에 따라 계획적, 단계적, 체계적인 습득을 지향해야만 한다.

2) 문부과학성의 실시시책, 사업과 그 내용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커리어교육 실시의 기본적인 시점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국가, 도도부현, 지역사회 차원에서 강구해 간다. 주요한 시책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커리어교육의 지도내용·방법의 책정이다. 2008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학습지도 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에서는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서 커리어교육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소학교, 중학교(2008),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2009)에서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인 진로지도를 행하고

커리어교육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커리어교육 추진 지침서」를 각 학교 교육 단계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커리어교육을 아동·생도의 장기적인 커리어 발달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각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 커리어교육의 내용과 실천의 공통이해의 형성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② 「커리어교육 추진 플랜(커리어교육 종합 계획)」(2003) : 문부과학성을 비롯해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내각 부의 관계 4부처에서는 2003년 4월에 관계 4대신에 의해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를 발족시키고 같은 해 6월에는 교육·고용·산업정책의 연계 강화 등에 따른 종합적인 인재 대책으로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초중등교육에서 프리타까 지 각자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전개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에 근거하여 취직(취업적 자립)의 촉진에 힘쓴다.

③ 「청년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2004부터 개시) : 문부과학, 후생노동, 경제산업, 경제재정 정책 담당 각 대신이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에서 정리한 「청년자립·도전플랜」에 근거하여 각 관계부서는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민일체가 된 종합적인 인재 대책에 실효적,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그를 위한 핵심으로 이하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 〈1〉 학교단계에서 커리어교육을 추진하고 그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연계를 강화한다.
- 〈2〉 일할 의욕이 불충분한 젊은 층과 니트라고 불리는 무직자 등에 대해서 일할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3〉 기업 내 인재육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이 기반인 산업인재의 육성·강화를 도모한다.
- 〈4〉 잡 카페, 일본판 듀얼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사업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 〈5〉 젊은 층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국민 각층이 일체가 된 대처를 추진한다.

④ 「신 커리어교육 플랜 추진 사업」(2004부터 개시) : 인턴십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연합협의회 설치 개최, 청년, 지역의 관계자 등과의 정보교환, 사회전체에서 커리어교육을 추진하는 기운을 양성해 나가기 위한 「커리어 추진 포럼」의 개최, 또한 지역 전체가 커리어교육에 임하기

위해서 추진지역을 지정하고 실천적 연구를 행한다.

⑤ 「커리어교육 실천 프로그램」(2005부터 개시) : 문부과학성을 포함한 7부성의 관계각료에 의해 정리된 「청년자립·도전을 위한 액션플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2005 및 2006에는 한층 더 커리어교육의 추진이 요구되었다. 아동·생도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도도부현에서 지역에서 직장체험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만들기,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장체험을 5일간 이상 실시하는 등, 지역의 교육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커리어교육의 한층 더 높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커리어교육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1999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초등·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결 개선에 대해서」, 2005년 「일본의 고등교육의 장래상」 등에서 바람직한 직업관, 근로관, 직업에 관한 지식·기능, 진로선택에 필요한 능력과 마음가짐 등의 육성, 더욱이 인턴십의 추진과 직업의식, 능력의 형성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2008년 중앙교육심의회 「학사과정 교육의 구축을 위해」에서 학생이 스스로의 직업관, 근로관을 배양하고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능력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활동전체를 통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대학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 보고 「대학에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에 관한 지도 등의 실시에 대해서」에서 「학생의 이수 지도와 취업지원」의 충실한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질 보증 및 직업지도(커리어가이던스)를 법령상에 명확화 할 것, 대학에 조직적 또는 계획적인 대처의 추진 등을 촉구하는 것이 제언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커리어교육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내용은 일하는 것에 대한 의의, 취직활동을 위한 지도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대학의 경우, 초등·중등 교육, 후기 중등교육인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하여 커리어교육의 추진과 상이하어 같은 법적 근거는 없고 개개의 자주적 대응과 실천에 맡겨지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도 2010년에 「대학과 직업과의 연결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를 정리하고 대학교육의 직업적 의식의 향상, 취직활동 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등을 제기하고 있다.

3) 고등학교에서의 커리어교육지도방침·내용

— 문부과학성「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침서」에서

중앙교육심의회는 2011년의 답신 「향후의 학교에서 커리어교육·직업교육의 본연에 모습에 대해서」에서 커리어교육을 학교 교육의 초등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단계적인 추진 과정 안에서 「사회인·직업인」으로의 자립을 독촉 받는 시기인 고등학교에서
 커리어교육의 충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도 200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유치원, 소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 학교의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에서 요구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으로 커리어교육의 충실, 같은 해 각의(閣議) 결정된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커리어교육이 향후 5년간, 관계부성의 연계에 따라 몰두해야만 하는 시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을 2009년에 개정했다.
 2011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받고 같은 해에 「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침서」를 작성하고 고교에서
 추진되는 커리어교육의 전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생도가 자기의 본연의 모습,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계획적·조직적인 진로지도로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학교 및 중학교에서 커리어교육의 실천을
 계속 고려하여 아동생도의 장기적인 커리어 발달을 지원하는 관점에 서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교육과정의 편성 본연의 모습을 재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소학교, 중학교 단계에서의 연속성 가운데 생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개성과 능력에 대응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생도에 대해서 개별적인 교육지도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고교에서의 커리어교육을 둘러싼 과제, 추진의 방향성, 목표, 그리고 교과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표 1 학과별 커리어교육의 과제와 추진의 방향성

	과제	추진의 방향성
보통과	· 진학의식을 명확히 하는 것 · 장래의 직업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지 식·기능에 관한 학습기회 설정·충실히 도모하는 것	현실적으로 사회, 직업의 이해를 높이는 것과 자신이 장래에 어떻게 사회에 참여 할지를 생각하는 교육활동을 지도계획에 넣어두고 실시한다.
전문과	· 직업학과에서는 직업의 다양화와 직업 인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의 고도화에 대응한 직업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	직업교육의 시작단계인 고등학교에서는 장래의 스페셜리스트로의 길을 시야에, 그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기능을 확실히 기르는 동시에 지역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 업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범용적 능력」을 기 른다

표 2

학과의 특질에 따라 육성해야만 하는 「기초적 · 범용적 능력」
- 모든 학과에 공통하여 육성해야만 하는 능력의 사례(1)

인간관계형성 · 사회형성능력	자기이해 · 자기관리능력	과제대응능력	커리어플래닝능력
타인의 개성을 이해하는 힘, 타인에게 제의하는 힘,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리더십 등	자기 역할 이해, 긍정적 사고의 힘, 자기 동기부여와 인내력,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주체적인 행동력 등	정보이해, 선택 · 이해, 본질 이해, 원인 추구, 과제 발견, 계획 입안, 실행력, 평가 · 개선 등	배우는 것, 일하는 것의 의의와 역할의 이해, 다양성 이해, 장래설계, 선택 · 행동과 개선 등

표 3

학과의 특질에 따라 육성해야만 하는 「기초적 · 범용적 능력」
- 모든 학과에 공통하여 육성해야만 하는 능력의 사례(2)

	인간관계형성 · 사회형성능력	자기이해 · 자기관리능력	과제대응능력	커리어플래닝능력
보통과	홍ulum에서의 의논활동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협력하여 사물에 대처하는 의식 · 태도를 기른다.	사회인 강화와 취업체험 등의 계발적인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을 알아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나아가 배우려는 힘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행하는 디베이트 등의 학습을 통한 과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육성한다.	대학의 너머에 있는 사회를 인식하고 장래의 직업을 인식하여 계획적 · 주체적으로 배우는 의욕과 태도를 육성한다.
전문과	실습 등의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타인의 개성을 이해하고 협력 · 협동하는 힘을 육성한다.	전문적인 학습과 산업, 직업과의 관련을 아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육성한다.	「과제연구」와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의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과제를 발견 · 분석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육성한다.	장래의 사회생활 · 직업생활에 필요로 하는 힘을 이해하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자격 취득에 매진하는 태도를 육성한다.

표 4 「커리어교육」의 추진에 각 과목이 몰두하는 역할 - 국어 예시

	내용
국어종합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언어를 통하여 원활하게 상호전달,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능력, 즉 대화하는 힘을 향상시킨다.
현대문A	언어문화로서 가치가 높은 현대 문화와 사상에 깊게 관련된 듯한 문장과 번역문장, 근대 이후의 문어(文語)문 및 연극과 영화 작품 등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문B	사회생활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고찰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높이거나 인간관계를 구축해 한다. 이해와 표현 능력을 높이고 생도의 내면을 풍부하게 형성하는 것은 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 출처: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국어편」에서 일부 발췌

표 5 「기초적·범용적 능력」의 육성에 관계하는 「국어종합」의 지도사항

	인간관계형성· 사회형성능력	자기이해· 자기관리능력	과제대응능력	커리어플래닝능력
말하는 것· 듣는 것	· 목적과 장소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정확하게 듣거나 하는 것 · 과제를 해결하거나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 상대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고 표현 방식과 진행방식 등을 궁리해서 서로 이야기 하는 것	·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서로 이야기 한 내용과 표현방식에 대해서 자기평가와 상호이해를 위해 자신의 말버릇과 말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사물을 보는 법, 느끼는 법, 생각하는 방법을 풍부하게 하는 것	·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논리의 구성과 전개를 궁리하여 의견을 말한다.	·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논리의 구성과 전개를 궁리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재차 게시)
쓰는 것	생략			
읽는 것	생략			

※ 출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침서」

이상의 내용은 문부과학성이 고교에서 도입·실시한 커리어교육의 통일적인 표준내용으로 작성,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실시 기본방침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커리어교육의 목표, 육성할 능력과 태도, 교육내용·방법 등의 책정은 각 고교에 맡기고 있다.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편성자인 교장을 비롯하여 고교에서 커리어교육의 이념, 의의, 효과 등의 공통 이해를 교원이 도모하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몰두할 것을 요구한다. 문부과학성은 그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사례로 나타내고 있다.

4) 고교에서의 커리어교육 실시 체제

문부과학성은, 커리어교육은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몰두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학교 전체 교직원이 커리어교육 추진을 위해 협동 가능한 조직과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커리어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례로 꼽힌 것이 「커리어교육 추진 위원회」 등의 학교 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커리어교육 추진 위원회」는 교장, 교감, 주간(主幹)교사를 중심으로 커리어교육 주임, 교육전임, 진로지도주사, 생도지도주임, 학년주임과 교과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임무로는 커리어교육의 이념, 의의 등의 이해에 서서 해당 고교로서 고교생의 커리어 발달단계의 과제인 「기초적·범용적 능력」의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학교경영계획으로 정리하여 운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커리어교육의 전체계획, 연간 지도 계획의 작성과 실시, 교재 조사·작성 연계기관(예를 들면 행정기관, 교육위원회, 지원 기업, 헬로우 워크 등)과의 연락·조정, 생도의 지도법, 실천상의 과제해결과 개선, 커리어교육의 평가, 각 학교의 실시 상황 파악,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커리어교육위원회」가 정리한 커리어교육의 전체 계획에 근거하여 학급 담임은 홈 룸 활동, 학교행사, 생도회 활동의 특별활동 시간, 종합적 학습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천에 힘쓰고 각 교과 담당은 커리어교육의 시점에서 교과지도를 행한다.

더욱이 커리어교육을 학교 전체의 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활동의 실시가 요망되고 있다. 다음은 문부과학성이 예시한 연수활동 내용이다.

학교 외에서의 커리어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는 기업, 공적 기관, 시설에서의 취업체험활동(인턴십)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체험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을 위한 외부와의 연계·조정에 관련된 코디네이터를 배치한 지도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표 6 교직원 연수 예

	연수 테마	목적	
제1회	커리어교육의 의의	· 고등학교 커리어교육의 의의를 이해한다. · 커리어교육의 추진에 불가결한 교직원전체의 의식을 높인다. · 자교의 생도에게 커리어 발달상의 과제, 육성할 능력과 태도를 밝히고 커리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로 삼는 생도상을 명확히 한다.	연수내용과 유의점에 대해서도 각 교에서 정해 두면 좋다.
제2회	커리어교육의 목표 설정	· 명확해진 육성할 능력, 태도와 각 교과 등의 관련을 생각하고 전체 계획, 연간 지도 계획을 작성한다.	
제3회	커리어교육의 시점에 서서 수업 만들기	· 각 교과 등의 단위 지도 계획과 일 단위 시간의 지도 계획을 작성한다. · 수업연구에 따라 지도력 향상을 도모한다.	
제4회	가정과 지역과의 효과적인 연계	· 가정과 지역의 커리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과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효과적인 연계의 진행방법을 이야기한다.	
적시	커리어 · 카운슬링	· 기본적인 카운슬링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인다.	

※ 출처 :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지침서」

5. 커리어교육의 성과? — 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관점에서

일본에서 커리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0년에 들어서이다. 커리어교육은 국가의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의무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 고등교육 단계,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시대 사회에서 심각화 되고 있는 청년문제, 특히 청년 세대의 불안정, 불확정적인 취업문제 해결과 청년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구체적으로는 「청년자립 · 도전전략회의」의 설치와 「청년자립 · 도전 플랜」의 책정, 실시)에서도 커리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련 중앙성처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종합정책, 종합행정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커리어교육은 기대되고 있는 교육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데이터는 2000년대 젊은 세대의 직업상황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학교 졸업의 취직률은 2000년대 전반을 기준으로 보면 고교, 대졸자에서 상승하고 있다.

표 7 학교단계별 및 젊은 세대의 연령별 취업상

	신규학졸취업률(%)				정규직원 · 종업원		비정규직원 · 종업원		파트 · 아르바이트		무직자	
	高校	専修	高専	大学	15~24	25~34	15~24	25~34	15~24	25~34	15~24	25~34
2003	95.1	85.0	95.7	92.8	313	1021	159	182	119	98	27	36
2004	95.9	90.3	100.0	89.5	303	1005	163	196	115	99	28	37
2005	97.2	92.5	98.5	93.5	287	977	155	205	104	97	25	39
2006	98.1	91.8	96.7	95.3	295	963	150	212	95	92	27	36
2007	98.4	93.8	98.8	94.4	288	923	138	210	89	92	25	36
2008	98.3	93.7	99.6	94.6	282	900	137	207	83	87	25	37
2009	97.8	91.8	100.0	94.5	273	867	125	199	87	91	26	36

※ 출처 : 후생노동성 「2010년도 · 경제노동백서」에서 작성

※ 주 : 정규직원 · 종업원 등의 단위는 만 명. 15~24, 25~34은 연령 구분이다.

한편, 비정규직원 · 종업원, 파트 · 아르바이트 종업원, 무직자는 각각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3자를 합한 수는 정규직원 · 종업원 수와 비교하면 15~24세에서는 238만 명 : 273만 명, 25~34세에서는 326만 명 : 867만 명으로 여전히 수가 많다. 물론, 이러한 2000년대의 학교 졸업자의 취직 상황은 시대사회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고용 상황)에 원래 규정된 것으로 커리어교육이 같은 규정력을 본디부터 가지지 않은 것은 말할 것 까지도 없다. 우리들이 커리어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대사회의 신규학졸자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취업상황, 특히 청년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에 문제를 포함하는 비정규취업자, 무직자의 존재와의 관련에서만 붙잡고 커리어교육을 비생산적인 교육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명쾌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단락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커리어교육을 취업의 기회확보 · 확대와 직선적으로 결부시키는 생각이기도 하다.

커리어교육의 목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도 · 학생에게 초등교육부터의 단계적, 계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바람직한 직업관 · 근로관 및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기의 개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 · 태도를 기르는 것」에 있다. 따라서 생도나 학생은 학교졸업 후 스스로의 진로선택에 당면해서 장래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전망하면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주체적으로 행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학교에서 전 교육활동을 통해서 단계적 · 발달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가 커리어교육의 성과를 둘러싼 평가로 추궁 받게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커리어교육의 성과를 검토하는 자료로 2009년에 학교 졸업 후의 진로로 취직을

지향하고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의 회답은 아래와 같다.

표 8 **취직을 선택 결정한 주된 이유**

	비율	남	여	공업고교	상업고교	농업고교	보통고교
진로지도를 받아서 결정함	16.9	18.3	14.0	16.6	18.1	8.7	21.1
직장인이 빨리 되고 싶어서	60.4	65.1	54.0	58.7	64.3	66.4	55.0
졸업 후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49.1	50.0	48.3	52.3	48.8	50.0	43.2
희망직종에 빨리 가고 싶어서	30.1	31.2	28.6	36.4	24.1	23.1	30.9
가계 지원의 필요에서	44.5	37.7	54.0	36.8	42.7	47.1	58.7
수입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67.1	68.8	64.8	70.3	71.4	62.5	
직업안정소의 설명을 듣고						2.9	3.1
졸업생의 직장체험을 듣고	6.4	6.7	6.0	6.0	7.1	6.7	6.2
인턴십에 참가하고	2.6	2.8	2.2	1.1	2.0	4.8	4.3
기타	5.5	3.2	8.6	6.4	3.5	6.7	5.6

※ 출처 : 후와 카즈히코, 「고교생의 취직으로의 어프로치와 교육적 지원, 협력」, 2009

취직을 스스로의 진로로 선택한 이유는 「희망하는 직종의 확보와 직장인으로서의 자기성장」 「경제적 자립 및 가계 경제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이탈」로 크게 나뉘질 수 있다. 「직장인으로서의 빠른 자립지향 타입」은 남성, 공업고교, 농업고교, 상업고교에서 높다. 특히 공업고교에서는 「희망하는 직종에 빨리 취직하고 싶다」라고 스스로의 취업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가진 생도가 많이 보였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지향 타입」에서는 여성, 보통고교에서 높았다.

한편, 교원에 의해 진로지도, 인턴십 실시에 의해 직장체험활동, 직업안정소 직원과 기업담당 등에 의한 설명회는 생도의 진로지도 결정에 적극적인 동기 부여와 원인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교는 생도의 졸업 후의 취직을 포함한 진로선택에 관한 교육적 지도(커리어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교원에 의한 진로지도」가 생도의 진로결정의 요인으로서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주시하고 싶다.

표 9 학교가 행하는 취업지도 성과

	비율	남	여	공업고교	상업고교	농업고교	보통고교
일하는 의미와 의의를 배움	37.7	39.5	35.2	38.5	40.7	34.6	34.6
시험대책 등 사전준비 방법	54.8	56.1	53.0	55.1	52.8	60.6	53.1
직업과 취업처의 선택 방법	35.8	37.7	33.3	38.5	33.7	26.0	40.1
취직정보수집의 방법	9.2	10.2	7.9	8.1	12.1	12.5	5.6
구인정보 검색과 보는 법	39.9	38.8	41.3	41.7	35.7	46.2	37.7
면접 시 언어와 대응 방법	62.4	58.2	68.3	60.1	63.8	61.6	65.4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대응	25.8	24.9	27.0	27.2	32.2	20.2	19.2
직장에서의 고민상담 방법	4.6	5.3	3.5	5.0	5.5	1.9	4.3
특별히 도움된 것은 없음	10.8	11.8	9.5	10.6	9.6	13.5	11.1
기타	1.1	0.7	1.6	1.1	0.5	1.9	1.2

※ 출처 : 후와 카즈히코, 「고교생의 취직으로의 어프로치와 교육적 지원, 협력」, 2009

고교가 1년 차부터 계획적, 계속적으로 생도를 대상으로 몰두하고 있는 진로지도, 취업지도를 둘러싼 생도 평가는 「면접에서의 말투 등의 대응 방법」, 「시험대책 등의 사전준비 방법」이라고 하는 직접적, 구체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많다. 청년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한 근원적인 조건이기도 한 「일하는 것을 비롯해 「직종의 선택」, 「근무처의 결정」,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전자를 밀돌고 있다. 또한 「특별히 도움이 된 것은 없다」라는 회답도 전 대상자의 10.8%나 되고 있다

표 10 취직을 둘러싼 고민의 정도

	상당히 고민했다			조금 고민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다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직업선택 기준	18.5	16.9	20.7	31.5	30.3	33.1	13.7	12.9	14.7	15.4	16.2	14.3	21.0	23.8	17.2
희망직업에 취직	23.1	20.4	26.8	29.8	27.2	33.5	16.8	17.4	15.9	15.5	16.0	14.7	14.9	19.0	9.3
직업의 자기적성	22.1	19.3	25.9	28.0	26.9	29.4	15.3	17.4	12.5	16.7	17.6	15.4	18.0	18.8	16.9
취직할 실감	12.7	10.5	15.7	21.1	20.4	22.1	21.8	19.5	25.0	17.5	18.8	15.7	26.9	30.9	21.5

	상당히 고민했다			조금 고민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다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희망직업 결정	8.6	6.7	11.2	15.5	14.9	16.3	19.6	18.6	21.0	20.6	21.1	19.8	35.9	38.8	31.9
직업의 정보	8.5	7.4	10.0	18.5	15.7	22.4	23.3	19.6	28.4	22.8	23.8	21.4	26.9	33.5	17.9
직업의 선택	11.9	9.1	15.6	21.3	18.0	25.8	18.5	18.5	18.5	19.7	20.3	18.8	28.7	34.1	21.4
직장에 적응	28.2	22.9	35.5	31.3	29.4	33.9	14.7	16.3	12.5	13.1	15.6	9.6	12.8	15.9	8.6
취업처 결정	13.0	8.6	19.1	19.5	19.0	20.1	19.2	18.5	20.1	20.4	22.7	17.2	28.0	31.3	23.6
직업결정 의욕	9.9	7.9	12.7	12.2	12.0	12.4	22.2	20.3	24.9	20.2	21.0	19.1	35.5	38.8	30.9

※ 출처 : 후와 카즈히코, 「고교생의 취직으로의 어프로치와 교육적 지원, 협력」, 2009

고교생이 취직활동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고민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고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민한 사항으로는 「취직한 후에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59.5%), 「희망하는 직업에 자신이 취업할 수 있을지 어떨지」(52.9%),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지」(50.0%), 「자신이 어떤 직업에 적절한지」(50.0%)가 주된 것으로, 각각 2명 중 1명, 또는 그것을 넘는 생도에게 이르고 있다. 직업선택에 당면해서 자신의 성격을 비롯하여 능력 등을 포함한 적성의 정확한 판단과 자신의 생활관, 사회관, 인생관 등과 관련한 직업선택을 할 때의 적절한 가치기준을 고교생이 명확하게 스스로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실은 이 같은 진로를 둘러싸고 고교생에게 필요한 능력형성은 커리어교육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휘되기까지에 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교생의 대부분이 취직을 둘러싸고 직면한 고민과 상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한다」(79.4%)가 가장 많고 「클래스 담당 교원」(51.3%), 또는 「진로 담당 교원」(29.8%)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는 경향은 여자 83.3%, 교원과의 대화는 남자 83.4%로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혼자 생각한다」(54.3%), 「같은 학교 친구나 선배와 대화한다」(53.2%)라고 하는 회답도 대상자 2명 중 1명을 약간 넘고 있다. 두 수치는 개별항목에 대한 회답률이라고 하는 점에서 클래스 담당 교원 및 진로담당교원에 대한 회답률보다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커리어교육의 일원으로서 생도의 진로선택·결정에 교원이 적절한 지도·조언을 행하는 「진로지도」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앙케트 조사의 회답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생도에게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로지도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기 또한 어렵다.

6. 커리어교육의 과제

(1) 커리어교육의 개념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과제이다. 커리어교육의 개념, 의의, 내용, 그리고 방법, 또한 학교 교육, 생애학습에 도입하는 시대적인 의의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필요성에 대해서이다.

① 커리어교육의 개념과 의의 및 교육활동 등에 관해서는 2011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향후의 학교에서 커리어교육·직업교육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등에 근거하여 전술한 바이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개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통해서 커리어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이며 「특정 활동과 지도방법에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의 교육과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각 학교단계의 노력을 생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16페이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추상도가 높은 구체성, 현실성을 결여한 설명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명시한 커리어교육의 개념을 학교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등교육(전기 중등교육인 중학교, 후기 중등교육으로서의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는 교육목표와 비교하는 것으로 좀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제 63조 중등교육학교는 소학교의 교육 기초 위에서 심신의 발달 및 진로에 응하여 의무교육으로서 행하는 보통교육 및 고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일관해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64조 중등교육학교 교육은 전조에서 규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에 내세우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 一 풍부한 인간성, 창조성 및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것
- 二 사회에서 다해야만 하는 사명의 자각에 근거하여 개성에 응하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게끔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
- 三 개성의 확립에 힘쓰고 사회에 대해서 넓고 깊은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르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학교 교육법에서도 개개인의 개성에 응하는 장래의 진로결정, 진로에 필요한 교양,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 더욱이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 요구되는 자질을 기르는 것 등이 중등교육의 교육목표로 정해져 있다. 이들은 문언의 표현으로 다르긴 하지만, 커리어교육이 내세우는 목표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커리어교육의 생각과 목표를 둘러싸고 교원에게 학교 교육법으로 결정된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행의 직업교육과 진로지도와 동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넓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인 경향은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 커리어교육의 현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아동·생도에 대한 지도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교육성과를 달성하는 방해가 되고 있다. 커리어교육이 단순히 명칭만으로 새로운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현재적인 과제에 응하는 목표, 내용, 방법부터 독자적으로 구축된 새로운 교육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교원, 보호자, 교육행정 기관은 물론 넓게는 시민, 사회전체에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② 커리어교육의 사고와 학교 교육, 생애학습에서 실시하는 시대적인 필요성, 의의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과제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일본사회에서 「커리어교육」의 용어는 1999년 중앙심의회 답신에서 공용어로 처음 사용되었지만 「커리어」라는 용어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정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 기관에서의 「커리어 팀」과 「논·커리어 팀」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고학력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포스터에 취임하고 있는 혹은 장래에 취임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엘리트관료지만 아닌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기업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고학력, 직무에 대한 업적평가를 주된 요인으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조직체 가운데 고위포스터에 취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커리어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커리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커리어교육에 대해서도 장래에 기업과 행정기관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말하자면 직장에서의 엘리트 양성, 출세 팀의 양성을 위한 커리어교육이라고 하는 해석이다. 또한 현재의 청년 세대가 전체적으로 출세에 대한 희망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커리어교육 그 자체가 많은 청년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관심밖에 놓여 버릴지도 모른다. 커리어 및 커리어교육을 둘러싸고 국민의 사이에서 정착해 있는 해석 즉, 엘리트 교육, 직장에서의 사원, 직원을 엘리트와 논·엘리트로 선별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왜곡화된 해석을 불식해 가는 것이 커리어교육의 이념과 그제 근거한 교육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2) 커리어교육의 실패는 취직의 기회획득을 위한 지도내용·방법에 심취해서 사회인·직업인의 자립을 목표로 삼는 커리어교육의 이념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고 그 균형의 회복이 커리어교육의 실시에 요구된다.

오늘날, 커리어교육의 명칭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대부분은 취직을 위한 진로지도, 취업관의 형성, 직종·업종·업계의 이해, 자기어필의 효과적 방법, 자기능력평가, 면담, 그룹 토론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취직을 위한 준비교육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커리어교육의 추진이 필요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취업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커리어교육이 교육정책으로서 문부과학성의 주도 아래 실시에 옮겨진 2000년대에 들어선 시대에는 정부가 동시대의 사회문제의 하나인 청년 취업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같은 회의에서 책정된 「청년자립·전략플랜」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취업문제 해결에 몰두해 오고 있는 것에서 커리어교육의 중심이 생도, 학생의 취직기회의 확대에 방향을 잡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도가 중점적으로 행해진 것은 극히 현실적인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커리어교육의 사고로서 생도,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자립에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의 교육활동을 통한 육성이 배제되고 경시되어 상술한 취업기회의 획득을 위한 교육만이 커리어교육의 명칭 아래 행해진 것은 커리어교육이 본래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활동과는 상이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립과 직업적 자립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적 자립은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확실한 지위와 그것에 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연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으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교육·학습, 사회적 모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① 해당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수여된 권리를 행사하고 스스로 사회에서의 역할인 노동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의 광범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즉, 노동하는 권리의 보유자에게 일에 종사하는 것, 일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 있는 의무이다. 따라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의 이해를 재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인 자유와 평등, 인격의 이해와 존중 등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행동원리로 삼으면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적인 연계·협력관계를 형성, 확대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전진에 참가하는 것

③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 활동(voluntary) 단체, NPO, 시민단체 등에 참가하고 민주주의적인 시민사회의 전진에 공헌하는 사회자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행동시민으로의 성장발달을 목표로 삼을 것이 저마다 기대된다.

사람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이들의 기본적 조건의 습득이야말로 유치원, 소학교부터의 단계적인 학교 교육, 가정교육, 성인교육 등에서 연속적,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적할 것도 없이 이 과제는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세대이행(사회 또는 타인으로서의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이행이기도 하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인 것을 인식하고 커리어교육의 실시에서 적극적으로 몰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일본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리어교육이 취직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는 현상에서 탈피하고 이념으로 내세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日本のキャリア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

—若者世代の社会的、経済的自立を目指して—

不破和彦(東北大学名誉教授・尚絅学院大学教授)

1. 青少年・若者とキャリア教育を検討する視点—学問的状况を踏まえ

青少年および若年成人の学校教育での学びから仕事への移行状況が今日的な課題として注視され、論議を呼んでいる。その背景には、経済のグローバル化の急速な進展、そのもとでの熾烈な市場競争の展開がそれぞれの社会の産業構造、生産構造とともに労働市場にも大きな変動を引き起こしている。特に、若年世代の就業機会の縮小化、職種の単純労働化、底辺労働化、雇用形態および雇用条件の不安定化などの問題状況の深化があげられる。

さらに論議が注視しているもう一つの重要な点は、青少年／若年成人から成人への移行を、形態としては学校から仕事への移行、内容としては社会、経済的意味での依存的状況から二つの意味での自立、自律（経済的自立と、自ら適切な思考力、判断力による決定と、責任ある行動が可能な自律したスタイルを発展的に追求する人間としての発達）への移行とする考えにある。これが青少年／若年成人から成人への移行をめぐる社会的に標準化された移行型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しかし、同時代の労働市場で現出している上述したような若年世代をめぐる一連の雇用問題の拡大と深化は、社会的に標準化されてきた青少年の仕事への従事を介した、社会的・職業的自立にある成人への発達移行を難しくし、逆に発達移行の不安定化、遅延化、さらに困難化といった多様で複雑な事態を広げている。さらに、学校から仕事への移行（つまり、社会の成人構成員になること）を内発的に志向しながらない自己逃避者とも称される青少年／若年成人の増加が指摘される。

こうした事態の成り行きへの注視と、そのことが青少年／若年成人の成人への発達移行におよぼす教育的、社会的問題をめぐる論議が今日の時代的な課題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ここで最も憂慮される事態は、青少年／若年成人にとって就業機会の縮小、賃金や雇用形態など就業条件の不安定化などに起因する経済的自立の困難が、家族、社会そして国家への経済的依存、その持続化による経済的不安から貧困化への危機的下降を招き、そこからの脱出の現実的な困難が彼らの働くことへの意欲、要求水準の低下をつのらせ、自己嫌悪、自己忌避など“主観的リスク”の発生、さらに社会的に自立した人間（成人）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社会的地位の獲得と役割遂行を果たしえない、自分への社会的スティグマ、社会からの自己忌避へと追いつめられていくという、一種の連鎖的な悪循環に陥る青少年／若年成人が現実増加していることにある。国家ならびに企業をはじめとする社会全体からの手厚い支援、協力が必須である。

青少年／若年成人が学校教育課程を修了し、成人への発達移行に向け、進路として選択される就業（働くこと）への移行のあり方は、その時代的な若年労働市場の構造に基本的に左右されることになる。そうした客観的な現実にあって、学校が就学期間を通して教育課程のもとで生徒／学生に行う、将来の社会的・職業的自立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教育的指導・支援は、経済的、福祉的、社会的な支援とともに、一段と重要さを増している。今日の日本で、この教育的な役割を担い政策として推進されているのが「キャリア教育」である。

2. キャリア教育ならびに関連政策の推移

最初に、現在、日本で着手されているキャリア教育政策の推進過程と、その特徴的な動向について述べることにしよう。以下はキャリア教育政策および関連政策、施策を時系列的にまとめたものである。

日本でのキャリア教育政策ならびに関連政策・施策などの推移

- 1953 日本職業指導学会発足（1978日本進路指導学会へ改組、2004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へ名称変更）
- 1957 中央教育審議会答申「科学技術教育の振興方策」で「進路指導」用語が初めて使用される。
- 1997 文部省、通商産業省、労働省「経済構造の変革と創造のための行動計画について」策定。同時に「インターンシップ推進のための三者連絡会議設置する」。
- 1999 中央教育審議会答申「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で「キャリア教育」用語が初

- めて使用される°
- 2000 文部科学省「キャリア体験等進路指導改善事業」° 中学校に職業体験° 高校に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を導入する°
- 2002 文部科学省「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関する総合的調査研究協力会議」を設ける°
文部科学省「小学校° 中学校学習指導要領改正」° なお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改正は2003年である° 各学校教育でキャリア教育の推進を明示的に求める°
- 2003 文部科学° 厚生労働° 経済産業° 経済財政政策担当各大臣「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設置
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若者自立・挑戦プラン」策定（最終目標年次2006年）
文部科学省「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関する総合的調査研究協力会議報告書」を公開° この中で°
キャリア教育を「児童生徒一人一人の勤労観° 職業観を育てる教育とし° キャリア教育の推進指針を提言する°
文部科学省「新キャリア教育プラン推進事業」開始° 初年度事業予算額140,287千円
文部科学° 厚生労働° 経済産業各省「若者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をとりまとめる°
- 2006 教育基本法改正：教育目標の1つとして「職業及び生活との関連を重視し勤労を重んじる態度を養うこと」が新たに盛り込まれた°
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に農林水産大臣が新たに加わり° 「若者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改訂）の推進° 強化が目指される°
内閣府青少年育成推進本部「キャリア教育等推進会議」設置
文部科学省「小学校° 中学校° 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推進の手引きー児童生徒一人一人の勤労観° 職業観を育てるために」作成
- 2007 学校教育法改正：義務教育の目標の1つとして「職業についての基礎的な知識と技能° 勤労を重んじる態度及び個性に応じて将来の進路を選択する能力を養うこと」が規定される°
キャリア教育等推進会議（構成員：内閣府特命担当大臣(青少年育成)° 文部科学大臣° 厚生労働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キャリア教育等推進プランー自分でつかもう自分の人生ー」を策定°
- 2008 政府は° 教育の振興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教育振興基本計画（教育基本法第17条第1項）を閣議決定する° 今後5年間（平成20～24年度）に取り組むべき施策の一つとして「関係府省の連携により° キャリア教育を推進することが挙げられている°
中央教育審議会答申「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

改善について」において新しい学習指導要領でのキャリア教育の充実が求められる。

2009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制定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自分に気づき 未来を築くキャリア教育—小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推進のために」´「自分と社会とをつなぎ 未来を拓くキャリア教育—中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推進のために」´「自分を社会に生かし 自立を目指すキャリア教育—高等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推進のために」(各学校教員向けのパンフレット)作成
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報告「大学における社会的 職業的自立に関する指導等の実施について」

2011 中央教育審議会答申「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

文部科学省「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作成(以上は中央教育審議会答申 文部科学省関連資料)

① 「キャリア教育」の言葉が日本で公的機関によって公用語として初めて使われたのは、中央教育審議会が文部大臣に提出した答申「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について」である。1999年である。中央教育審議会(委員構成30人以内 任期2年)は、文部科学大臣の諮問に応じて、教育制度、初等教育から大学教育までの学校教育、スポーツ・青少年教育さらに教育振興基本計画などに関する重要事項を調査審議し、意見を提起する。その内容は日本の教育政策立案に大きな影響力を与える。したがって、キャリア教育は、1999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を受けて、その後、2000年代の文部科学省の教育政策に導入、推進されることになる。

② キャリア教育の目標、活動に法的根拠が与えられる。2006年に教育基本法が60年ぶりに改正されたさい、教育目標の一つとして「職業及び生活との関連を重視し勤労を重んじる態度を養うこと」が定められる。教育基本法改正に伴う2007年学校教育法の改正においても、義務教育の目標の一つに「職業についての基礎的な知識と技能、勤労を重んじる態度及び個性に応じて将来の進路を選択する能力を養うこと」が明記される。キャリア教育は今日の時代社会における喫緊の教育課題として、政府が重視し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キャリア教育等推進会議」(2006)が内閣府青少年育成推進本部内に設置されたことから裏づけられる。

③ 文部科学省は、キャリア教育推進の中核行政機関として、推進に必要な条件整備を積極的に進める。具体的には、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改正でのキャリア教育の指導

指針、内容、方法などの明示、「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関する総合的調査研究協力会議」

(2002)を設置、調査研究を実施し、また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の協力を得ながら、小学校、中学校および高等学校でのキャリア教育の手引き、パンフレット作成、関連事業企画、実施、さらにキャリア教育推進のプラン策定などに取り組んでいる。

④ キャリア教育は、教育基本法改正および学校教育法改正で新たな教育目標として導入され、さらに2008年に政府が教育の総合的な振興を図る指針として閣議決定した「教育振興基本計画」においても、その推進が目指される。本来的に、教育の政策化は中央教育審議会を中心に各種審議会から協議・提起された答申を踏まえ、文部科学省が立案、策定し、実施される仕組みをとっている。キャリア教育の導入と実施に関しては、法的根拠が与えられ、政府も閣議決定によって推進を指示、奨励していることは、キャリア教育が日本の教育、特に学校教育の時代的な重要課題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

⑤ キャリア教育が文部科学省の教育政策として推進されている時期に、若者の自立支援にかかわる会議の設置、政策の立案、法整備が進められている点に注視したい。たとえば、2003年の文部科学、厚生労働、経済産業、経済財政政策担当各大臣からなる「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が設置され、「若者自立・挑戦プラン」（最終目標年次2006年、教育・雇用・産業政策の連携を強化するとともに、人材対策への政策資源の重点投入とその効率的な活用、成果の最大化を図りながら、官民一体となって総合的な人材対策を強化し、フリーター約200万人、若年失業者、無業者約100万人を数える状況の転換を、今後3年間で目指す）を策定している。さらに、2009年の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制定などがある。いずれも若者の就業確保、それによる経済的な安定、自立化を目指すことに力点が置かれている。政策としてキャリア教育との一体的な接合、連続性が不可避的に期待されるものである。しかし、一方では、キャリア教育の政策的な背景や目標を若者の経済的自立に向けた就業確保のための教育という狭義の解釈を与えかねない問題を内包することになる。このことはキャリア教育の概念、意義、内容を曖昧化させることにもつながる。これらに関しては、改めて後述したい。

3. キャリア教育政策導入の背景と目的

キャリア教育が日本の教育政策の中で初めて登場したのは、前述した1999年の中央教育審議会答申「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について」である。これを契機に、2000年代に入ってキャリア教育は学校教育を中心に導入、推進されることになる。日本の学校教育では、戦後、「職業教育」「進路指導」が教育活動の一つとして実施されてきているが、21世紀への移行時期に、新たにキャリア教育を必要とした教育的・社会的背景について考えてい。

中央教育審議会答申「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について」は、文部大臣から受けた諮問事項である(1)教育改革に伴う高等学校および大学の役割分担の明確化と両者の教育の連携、(2)高等学校と大学の接続を重視した大学入学者選抜の改善に関する審議を主内容として取りまとめたものである。本答申がキャリア教育に言及されたのは、第6章「学校教育と職業生活との接続」においてである。そこでは、1990年代に新規学卒者のフリーター志向が広がり、高等学校卒業者では進学も就職もしていない者の占める割合が約9%に達し、また新規学卒者の就職後3年以内の離職も新規高卒者で約47%、新規大卒者で約32%（労働省調査）にもおよんだと、当時の新規学卒者の動向が述べられている。こうした若年者の動向、特に就業をめぐる問題が社会的に深刻化するなかで、学校教育と職業生活との接続のあり方が問われ、両者の円滑で効果的な接続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キャリア教育（望ましい職業観・勤労観及び職業に関する知識や技能を身に付けさせるとともに、自己の個性を理解し、主体的に進路を選択する能力・態度を育てる教育）を小学校段階から発達段階に応じて実施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この文脈からも、学校教育にキャリア教育を積極的に導入する必要性は、1990年代に現出していた新規高校卒者、ならびに新規大学卒者の深刻な就業問題と、その解決に向けた具体的な方策確立にあったと言えよう。

1990年代は日本の経済にとって大きな転換期であった。1980年代半ばに出現した景気上昇・バブルが1990年代初頭に崩壊し、日本経済は急速に失速しはじめ、長い低迷期に入ることになる。この直面した経済の危機的事態は国の経済政策、企業経営などに構造的な改革をせまるとともに、雇用慣行、就業構造にも大きな変化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新規高校卒者、大学卒者の就職状況も例外ではなかった。バブル経済がピーク時であった1992年に、高校生の求

職者50万人にたいして求人数は167万人を数えた。その後、求人数は急速に減少しはじめ、2000年前後には求職者数をわずかに上回るにすぎなかった。一方、大学卒者に対する求人倍率は1991年3月の2.86倍をピークに低下し続けたものの1.0倍を下回ったのは2000年の0.99倍だけで、2005年には1.37倍にまで回復している。2000年3月高校卒者の就職率は93.6%、専修学校卒者86.3%、短大卒者88.4%、大学卒者92.0%と、学校卒業段階で未就職者が発生し、この事態は、その後、増加に転じていくことになる。この時期、全就業者の中で非正規雇用者率は20%を超え、1990年代後半にむけ急速に増加し、1999年25%、2003年30%に達しているが、10代後半で71.8%、20代43.2%と若年者で著しく上昇している。さらに若年者（15～34才）の間で無業者60万人（2002）、フリーター217万人（2003）と増加している。また、新規学卒者の離職率の高さが社会問題として注視されてくる。学卒就職3年目で初職からの離職者は高校卒者45%、大学卒者32%とほぼ2～3人に1人が経験している。

高校卒者の進路を文部科学省『学校基本調査』から確認すると、卒業者数は少子化の影響から1992年を境に減少傾向にはいる。こうした中で、1990年代後半に、大学などへの進学者59.3万人が就職者58.4万人を初めて上回る。ちなみに2010年には就職者が16.7万人で、大学などへの進学者は58.1万人と、後者が圧倒的に多くなっている。高校卒就職者数は、長期にわたり新規学卒就職者の中で最も大きな割合を占める存在であり続けたが、1997年に大学卒就職者に追い抜かれている。高校生の進路選択として就職志望者が減少にあるものの、上述したように高校卒者をとりまく就職環境は1990年代半ばに始まる日本経済のバブル崩壊、その後の長期にわたる低迷から悪化をたどっている。こうした事態は増加する大学卒者をめぐっても、就職環境は高校卒者に比べ幾分緩和されているとはいえ、顕在化し、拡大の様相を示すことになる。

深刻化した教育、社会問題である若年者の就業問題の解決に向けた具体的な対応が、政府はじめ学校を中心とする教育施設、企業などの事業所に求められることになる。その一つは、1999年に、中央教育審議会が初めてキャリア教育の必要性を問題解決への指針として提起したことである。また、政府や中央行政機関が若者の自立を図る会議の設置や事業の企画、立案そして政策的な実施に着手していくのも同様な観点からである。

4. キャリア教育と職業教育、進路指導との差異および関連について

ところで、政府ならびに文部科学省はキャリア教育をどのように解釈しているのか。また、学校教育で以前から実施されてきている職業教育、進路指導との概念上の区別はどのように行われているのか。三者の相互の関連は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のか。これらの点について、主に2011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から記述していくことにする。中央教育審議会は文部大臣の直轄諮問機関であり、国の教育の在り方にかかわる重要事項を審議し、答申する任務を付託されている点から、その答申内容は文部科学省、政府の教育政策立案の根幹を成すことになる。この点から、キャリア教育をめぐる中央教育審議会答申によって取りまとめられた内容を検討することの意味がある。

(1) 本答申は、キャリア教育について、「一人一人の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必要な基盤となる能力や態度を育てることを通じて、キャリア発達を促す教育である」としている。その上で、「特定の活動や指導方法に限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様々な教育活動を通して実践されるもの」であり、「学校教育を構成していくための理念と方向性を示すものである」(16頁)と指摘している。

「キャリア」の意味については、「生涯の中で様々な役割を遂行する過程で自らの役割の価値や自分と役割との関係を見出していく連なりや積み重ね」にあるとしている。自分と社会での役割との価値ある関係は「自然に獲得されるものではなく、子ども、若者の発達の段階や発達課題の達成と深くかかわりながら、段階を追って発達していく」ものであり、「社会の中で自分の役割を果たしながら、自分らしい生き方を実現していく過程」、および「自己の知的、身体的、情緒的、社会的な特徴を一人一人の生き方として統合していく過程」が「キャリア発達」と捉える。

なお、本答申の中で、キャリア教育の解釈をめぐって、咀嚼(かみくだいて)し、分りやすく言えば、「子ども、若者が社会の一員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とともに、それぞれの個性、持ち身を最大限発揮しながら、自立して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能力や態度を育てる教育」である、とも述べている。

(2) 一方、「職業教育」は、「一定又は特定の職業に従事するために必要な知識、技能」

能力や態度を育てる教育」と規定し、前者との差異を明確にしている。さらに「専門的な知識や技能の育成は学校教育のみで完成するものではなく、生涯学習の在り方を考える必要がある」「多様な職業に対応し得る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て必要な基盤となる能力や態度の育成も重要となる」（16頁）と、職業教育の観点、内容にかかわる補足説明をしている。

両者の関連をめぐって、キャリア教育は「普通教育・専門教育を問わず様々な教育活動の中で実施され」「職業教育」も含まれるとし、また「職業教育は（キャリア教育の課題である）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て必要な基盤となる能力や態度を育成する上でも極めて有効である」と述べられている。この点から、キャリア教育は職業教育を包摂する上位概念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解釈できよう。

また、キャリア教育と職業教育の方向性を考えるうえで重要な視点として、以下の2つが挙げられている。

- ① 仕事をすることの意義や、幅広い視点から職業の範囲を考えさせる指導を行う。
- ② 社会的・職業的自立や社会・職業への円滑な移行に＜必要な力＞を明確化する。

なお、＜必要な力＞とは、＜基礎的・基本的な知識・技能＞、＜基礎的・汎用的能力＞、＜論理的思考力・創造力＞、＜意欲・態度や価値観＞、＜専門的な知識・技能＞であり、個々人のキャリア発達の段階的な課題として習得していくことが、社会的・職業的自立にとって必須の要件である。これら＜必要な力＞の中で、変動の激しい不確定な時代社会で、自らの進路選択を的確に考え、判断し、社会および職業へ安定的な参加・定着を図るうえで必要な基礎的・汎用的能力は、＜人間関係形成・社会形成能力＞、＜自己理解・自己管理能力＞、＜課題対応能力＞そして＜キャリアプランニング能力＞から構成される。

（3）「進路指導」（1950年代前半まで、「職業指導」と称されていた）については、「生徒みずから将来の進路の選択・計画をし、就職または進学して、さらにその後の生活によりよく適応し、進歩する能力を伸長するように、教師が組織的・継続的に援助する教育活動である」（54頁）と解釈され、「進路指導のねらいはキャリア教育の目指すところとほぼ同じ」（54頁）であるとの見解が示されている。

＜参考資料：文部省「進路指導の手引き」1983年、40頁より引用＞

「生徒の一人ひとりが自分の将来の生き方への関心を深め、自分の能力・適性などの発見と開発に努め、

進路の世界への知見を広くかつ深いものとし、やがて自分の将来への展望を持ち、進路の選

択し、計画をし、

卒業後の生活によりよく適応し、社会的、職業的自己実現を達成していくことに必要な生徒の自己指導能

力の伸長を目指す、教師の計画的、組織的、継続的な指導・援助の過程である」

5. キャリア教育の推進事業

1) 中央教育審議会が提示したキャリア教育推進の基本的視点

中央教育審議会はキャリア教育の実施にかかわる基本的な認識として、「特定の活動や指導方法に限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様々な教育活動（職業教育を含む）を通して実践されるもの」であり、「幼児期の教育や義務教育の段階から体系的に各学校段階の取組を考え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明言している。その上で、実施にあたっての基本的な視点が以下のように提示されている。

① 「キャリア発達は、個々の子ども、若者でそれぞれ異なるため、一人一人のキャリア発達を促すよう、きめ細かく支えていくことが必要となる。後期中等教育を修了するまでに、生涯にわたる多様なキャリア形成に共通した能力や態度を身に付けさせるとともに、これらの能力や態度の育成を目標と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述べ、キャリア教育の目標は学校教育の各段階で設定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② キャリア教育は幼児期の教育や義務教育の段階から体系的に推進されることで、基礎的・汎用的能力（内容は前述）を子どもと若者に確実に育成するとともに、社会、職業との関連を重視した実践的・体験的な活動を通して、仕事をするものの意義や幅広い視点から職業の範囲を考えさせる指導を行う。

③ さらに、子ども・若者の社会的、職業的自立や学校から社会、職業への円滑な移行に必要な力（内容は前述）を明確にし、学校教育での各教科、科目が役割として担うキャリア教育によって計画的、段階的、体系的な習得が目指されるべきである。

2) 文部科学省の実施策、事業とその内容

文部科学省は、中央教育審議会が提示されたキャリア教育実施の基本的な視点をふまえ、具

施策を国・都道府県さらに地域社会レベルで講じていく。主要な施策とその内容は以下である。

① キャリア教育の指導内容・方法の策定である。近年では、2008年1月中央教育審議会答申「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において、新しい学習指導要領でのキャリア教育の充実が求められたことから、文部科学省は小学校・中学校学習指導要領改訂（2008）、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改訂（2009）で「学校の教育活動全体を通じ、計画的・組織的な進路指導を行い、キャリア教育を推進すること」を盛り込んでいる。また、「キャリア教育推進手引き」を各学校教育段階で作成している。これらはキャリア教育を児童・生徒の長期的なキャリア発達を支援する観点から段階的かつ体系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各学校に必要とされる教育課程の編成、キャリア教育の内容と実践の共通理解の形成などの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

② 「キャリア教育推進プラン（キャリア教育総合計画）」（2003）：文部科学省はじめ厚生労働省、経済産業省及び内閣

府の関係4府省では、2003年4月に関係4大臣による「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を発足させ、同年6月には、教育・雇用・産業政策の連携強化等による総合的な人材対策として「若者自立・挑戦プラン」を取りまとめている。これをうけて、文部科学省は初等中等教育からフリーターまで、それぞれに応じた適切な支援を展開し、明確な目的意識のもと、つく就職（職業的自立）の促進に努める。

③ 「若者の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2004から開始）：文部科学、厚生労働、経済産業、経済財政政策担当各大臣が「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で取りまとめた「若者自立・挑戦プラン」にもとづき、各関係府省は教育・雇用・産業政策の連携を強化し、官民一体となった総合的な人材対策に実効的かつ効率的に取り組むこととする。そのためのポイントとして以下の内容が示された。

- 〈1〉 学校段階からのキャリア教育を推進し、その効果的な実施のため地域レベルにおける連携を強化する
- 〈2〉 働く意欲が不十分な若年者やニートと呼ばれる無業者などに対して、働く意欲や能力を高める総合的な対策を推進する
- 〈3〉 企業内人材育成の活性化を促進し、産業競争力の基盤である産業人材の育成・強化を図る

〈4〉ジョブカフェ、日本版デュアルシステム等を推進し、的確な評価に基づき事業成果の向上を図る

〈5〉若年問題について国民的な関心を喚起するとともに、国民各層が一体となった取組を推進する

④ 「新キャリア教育プラン推進事業」（2004から開始）：インターンシップ推進のために国レベルでの連絡協議会の設置・開催、若者、地域の関係者などとの情報交換、社会全体でキャリア教育を推進する気運を醸成していくための「キャリア推進フォーラム」の開催、また地域ぐるみでキャリア教育に取り組むための推進地域を指定し、実践的研究を行う。

⑤ 「キャリア教育実践プロジェクト」（2005から開始）：文部科学省、ふくむ7府省の関係閣僚により取りまとめられた「若者の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や、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2005及び2006において、キャリア教育の更なる推進が求められた。児童・生徒の勤労観、職業観を育成するために、各都道府県において、地域における職場体験の推進のためのシステムづくり、中学校を中心とした職場体験の5日間以上の実施など、地域の教育力を最大限に活用し、キャリア教育の更なる推進を図るための調査研究を実施する。

なお、大学でのキャリア教育に関しては、例えば1999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初等・中等教育と高等教育との接続の改善について」、2005年「わが国の高等教育の将来像」などで、望ましい職業観、勤労観、職業に関する知識・技能、進路選択に必要な能力や心構えなどの育成、さらにインターンシップの推進や職業意識、能力の形成支援が要望されている。これに加えて、2008年中央教育審議会「学士課程教育の構築に向けて」で、学生が自らの職業観、勤労観を培い、社会人として必要な資質能力を形成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大学の教育活動全体を通じて支援する必要性を、大学に促している。また、2009年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報告「大学における社会的・職業的自立に関する指導等の実施について」では、「学生の履修指導や就職支援」の充実の観点から大学教育の質保証、および職業指導（キャリアガイダンス）を法令上に明確化すること、大学に組織的かつ計画的な取組みの推進などを促すことが提言されている。今日では、ほとんどの大学がキャリア教育に取り組んでいる状況にあるが、その内容は働くことの意義、就職活動に向けた指導などを中心としたものである。大学の場合、初等・中等教育、後期中等教育である高等学校での学習指導要領にもとづくキャリア教育の推進と異なり、同様な法的根拠はなく、個々の自主的な対応と実践にゆだねられている。

日本学術会議も2010年に「大学と職業との接続の在り方について」をとりまとめ、大学教育の職業的意識の向上、就職活動の在り方の見直しなどを提起している。

3) 高等学校でのキャリア教育指導方針・内容 ― 文部科学省「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手引き」より 中央教育審議会は、2011年の答申「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で、キャリア教育を学校教育の初等教育段階から体系的に推進していく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が、その段階的な推進過程のなかで、「社会人・職業人としての自立が迫られる時期である高等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充実は、喫緊の課題である」と強調している。文部科学省もまた2008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で、求められた新しい学習指導要領でのキャリア教育の充実、さらに同年閣議決定された「教育振興基本計画」において、キャリア教育が今後5年間に関係府省の連携により取り組むべき施策の1つに位置づけられたことをふまえ、これらに対応する内容を含む「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を2009年に改訂している。また、2011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を受け、同年に「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手引き」を作成し、高校で推進されるキャリア教育の全体構想を具体的に説明している。

文部科学省は、高校でのキャリア教育について、「生徒が自己の在り方生き方を考え、主体的に進路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学校のエデュケーション全体を通じ、計画的・組織的な進路指導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る、と述べている。そのためには、小学校及び中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実践を視野におさめ、児童・生徒の長期的なキャリア発達を支援する観点に立って、計画的・組織的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各学校が連携を図りつつ教育課程の編成の在り方を見直していく必要がある。さらに、「小学校、中学校段階からの継続性の中で、生徒一人一人の発達段階に応じた様々な教育活動を通じ、個性や能力に応じた教育を施す」という、生徒に対する個別的な教育指導を促している。以下は、高校でのキャリア教育をめぐる課題、推進の方向性、目標、そして教科目との関連性についての説明内容である。

表 1 学科ごとのキャリア教育の課題と推進の方向性

	課題	推進の方向性
普通科	・ 進学する意識を明確にすること ・ 将来の職業生活に向けた基礎的な知識・技能に関する学習の機会の設定・充実を図ること ・ 職業学科においては、職業の多様化や職業人	現実的に社会、職業の理解を深めることや、自分が将来どのように社会に参画していくかを考える教育活動を指導計画に位置づけて実施する 職業教育のスタート段階である高等学校では、将来の
専門科	として求められる知識、技能の高度化に対応した職業教育の充実を図ること	スペシャリストへの道を視野に、その基礎的、基本的な知識、技能を確実に養うとともに、地域や産業界との連携を図った職業教育が必要である。また、職業教育を通して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て必要な「基礎的、汎用的能力」を育てる

表 2 学科の特質に応じた育成すべき「基礎的・汎用的能力」

－ すべての学科に共通して育成すべき能力の事例(1)

人間関係形成・社会形成能力	自己理解・自己管理能力	課題対応能力	キャリアプランニング能力
他者の個性を理解する力、他者に働きかける力、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キル、チームワーク、リーダーシップなど	自己の役割の理解、前向きに考える力、自己の動機づけや忍耐力、ストレスマネジメント、主体的な行動力など	情報の理解、選択・処理、本質の理解、原因の追求、課題発見、計画の立案、実行力、評価・改善など	学ぶこと、働くことの意義や役割の理解、多様性の理解、将来設計、選択・行動と改善など

表 3

学科の特質に応じた育成すべき「基礎的・汎用的能力」

- すべての学科に共通して育成すべき能力の事例(2)

	人間関係形成・ 社会形成能力	自己理解・ 自己管理能力	課題対応能力	キャリアプラン ニング能力
普通科	ホームルームでの話し合い活動などを通じて、相互理解を図るとともに、協力して物事に取り組む意識・態度を養う	社会人講話や就業体験などの啓発的な体験を通じて、自己の適性等を知り、主体的に行動し、自ら進んで学ぼうとする力を育成する	具体的な課題を設定して行うディベートなどの学習を通じて、課題の本質を理解し、その課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力を育成する	「大学の向こうにある社会を認識し、将来の職業を意識して、計画的・主体的に学ぶ意欲や態度を育成する
専門科	実習などの体験的な学習を通じて、多様な他者の個性を理解するとともに、協力・協働していく力を育成する	専門的な学習と産業や職業との関連を知ることを通じて、自らの役割を理解し、主体的に行動していく力を育成する	「課題研究」や「総合的な学習の時間」などの学習を通じて、様々な課題を発見・分析し、適切な計画をたて、その課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力を育成する	将来の社会生活・職業生活に必要な力を理解するとともに、卒業後も継続して職業資格の取得などに取り組む態度を育成する

表 4

「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各教科目が取り組む役割-国語の例示

	内容
国語総合	人間と人間との関係の中で、互いの立場や考えを尊重しながら、言語を通して円滑に相互伝達、相互理解を進めていく能力、すなわち伝え合う力を高める
現代文A	言語文化として価値が高く、現代の文化や思想に深くかかわるような文章や翻訳の文章、近代以降の文語文及び演劇や映画の作品なども含めて考えることが大切である
現代文B	社会生活においては、情報をとらえ、考察し、それをまとめて表現するということが日常的に行われ、それによって自らを高めたり、人間関係を築いたりしていく。理解と表現の能力を高め、生徒の内面を豊かに形成することは、そのために必要不可欠なことである

※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国語編」から一部抜粋

表 5 「基礎的・汎用的能力」の育成に関連する「国語総合」の指導事項

	人間関係形成・ 社会形成能力	自己理解・ 自己管理能力	課題対応能力	キャリアプラン ニング能力
話すこと・ 聞くこと	・ 目的や場に応じて、効果的に話したり、的確に聞き取ったりすること ・ 課題を解決したり、考えを深めたりするために、相手の立場や考えを尊重し、表現の仕方や進歩の仕方などを工夫して話し合うこと	話したり聞いたり、話し合ったりしたことの内容や表現の仕方について、自己評価や相互理解を行い、自分の話し方や言葉づかいに役立てるとともに、ものの見方、感じ方、考え方を豊かにすること	話題について様々な角度から検討して自分の考えをもち、根拠を明確にするなど論理の構成や展開を工夫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	話題について様々な角度から検討して自分の考えをもち、根拠を明確にするなど論理の構成や展開を工夫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再掲)
書くこと	略			
読むこと	略			

※ 資料：文部科学省「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手引き」

以上の内容は、文部科学省が高校で導入・実施されるキャリア教育の統一的な標準内容として作成、提示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これらを実施の基本的指針としながら、具体的なキャリア教育の目標、育成したい能力や態度、教育内容・方法などの策定は各高校にゆだねられている。教育課程の最終的な編成者である校長をはじめとして、高校にはキャリア教育の理念、意義、効果などの共通理解を教員に図り、学校で行われる全教育活動を通じて取り組むことが求められる。文部科学省は、そのために必要とされる方策を事例的に示している。

4) 高校でのキャリア教育実施体制

文部科学省は、キャリア教育は学校の全教育活動を通して取り組んでこそ達成できると述べ、学校のすべての教職員がキャリア教育推進のために協働できる組織や体制づくりが必要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つまり、キャリア教育の実践を支えるための全体運営体制を設けることである。一例として挙げられたのが「キャリア教育推進委員会」などの学校内組織を設けることである。

「キャリア教育推進委員会」は校長、副校長、教頭、主幹教諭を中心にキャリア教育主任、

教務専任、進路指導主事、生徒指導主任、学年主任や教科主任などから構成される。任務としては、キャリア教育の理念、意義などの理解にたつて、当該高校として、高校生のキャリア発達段階の課題である「基礎的・汎用的能力」の指導内容を具体的に示すとともに、教育課程にどのように位置づけるのかを検討し、その具体的な指針を学校経営計画として取りまとめ、運営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具体的には、キャリア教育の全体計画、年間指導計画の作成と実施、教材の吟味・作成、連携機関（たとえば行政機関、教育委員会、地元企業、ハローワークなど）との連絡・調整、生徒への指導法、実践上の課題解決や改善、キャリア教育の評価、各学校での実施状況把握、情報収集など広範に及んでいる。

「キャリア教育委員会」が取りまとめたキャリア教育の全体計画にもとづき、クラス担任は、ホームルーム活動、学校行事、生徒会活動の特別活動の時間、総合的学習の時間などを活用し、実践に努め、また各教科担当はキャリア教育の視点で教科指導を行う。

さらに、キャリア教育を学校のすべての人的資源を総合的に活用し、効率的、実効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教職員を対象とする研修活動の実施が要望されている。以下は、文部科学省が例示された研修活動の内容である。

表 6 教職員研修の例

	研修のテーマ	ねらい	
第1回	キャリア教育の意義	・ 高等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意義を理解する。 ・ キャリア教育の推進に不可欠な教職員全体の意識を高める。 ・ 自校の生徒におけるキャリア発達上の課題、育成したい能力や態度を	研修内容や留意点についても各校において定めておくとい
第2回	キャリア教育の目標の設定	・ を明らかにし、キャリア教育の目標を設定して、目指す生徒像を明確にする。 ・ 明らかにされた育成したい能力や態度と各教科等の関連を考え、全体計画、年間指導計画などを作成する。	
第3回	キャリア教育の視点に立った授業づくり	・ 各教科等の単元指導計画や一単位時間の指導計画を作成する。 ・ 授業研究により、指導力の向上を図る。	
第4回	家庭や地域との効果的な連携	・ 家庭や地域のキャリア教育に対する理解を促進する手立てや、学校の特性を生かした効果的な連携の進め方を話し合う。	
適時	キャリア・カウンセリング	・ 基本的なカウンセリング能力、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高める	

※ 資料：文部科学省「高等学校キャリア教育手引き」

学校外でのキャリア教育の実施に関しては、企業、公的機関、施設での就業体験活動（インターンシップ）や、地域での多様な社会体験活動などが考えられるが、その実現に向けた外部との連携・調整に関わるコーディネーターを配置した指導体制も検討され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

6. キャリア教育の成果？ — 若者の社会的・経済的自立の観点から

日本でキャリア教育が開始されたのは、2000年代に入ってからである。キャリア教育は、国の新たな教育政策として位置づけられ、義務教育から後期中等教育、高等教育段階、さらに生涯学習の観点から成人にいたるまで継続的に実施されている。また、この時代社会で深刻化している若者問題、とりわけ若者世代の不安定、不確定な就業問題の解決と若者の自立支援をターゲットとする政策（具体的には「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の設置と「若者自立・戦略プラン」の策定・実施）においても、キャリア教育の必要性が強調され、文部科学省を中核に関連中央省庁との連携を図り、総合政策、総合行政の性格を強めながら、今日まで推進されている。

この間、キャリア教育は期待されている教育的な成果をどの程度達成しているか。以下のデータは2000年代の若年世代の就業状況の推移を示している。新規学校卒者の就職率は2000年代前半を基準にみると、高校、大学卒者において

表 7 学校段階別および若年世代年齢別就業状況

	新規学卒就職率(%)				正規職員・従業員		非正規職員・従業員		パート・アルバイト		無業者	
	高校	専修	高専	大学	15～24	25～34	15～24	25～34	15～24	25～34	15～24	25～34
2003	95.1	85.0	95.7	92.8	313	1021	159	182	119	98	27	36
2004	95.9	90.3	100.0	89.5	303	1005	163	196	115	99	28	37
2005	97.2	92.5	98.5	93.5	287	977	155	205	104	97	25	39
2006	98.1	91.8	96.7	95.3	295	963	150	212	95	92	27	36
2007	98.4	93.8	98.8	94.4	288	923	138	210	89	92	25	36
2008	98.3	93.7	99.6	94.6	282	900	137	207	83	87	25	37
2009	97.8	91.8	100.0	94.5	273	867	125	199	87	91	26	36

※ 厚生労働省「平成22年度・経済労働白書」より作成

※ 注：正規職員・従業員などの単位は万人° 15～24° 25～34は年令区分である°

上昇している° 一方で、非正規職員・従業員、パート・アルバイト従業員、さらに無業者はそれぞれ数的に減少しているものの、三者を合わせた数は正規職員・従業員数と比べると、15～24才では238万人：273万人、25～34才では326万人：867万人と、依然として多数である° もちろん、こうした2000年代の学校卒者の就業状況は、時代社会の経済活動および労働市場（雇用状況）に本来的に規定されたものであって、キャリア教育が同様な規定力を本来的に持っていないことは指摘するまでもない° われわれがキャリア教育の成果に対する評価を、時代社会での新規学卒者を含む若年世代の就業状況、特に若者の社会的、職業的自立に問題を抱える非正規就業者、無業者の存在との関連からのみ捉え、キャリア教育を非生産的な教育活動と判断することは、一見したところ明解な解釈のようにみえるが、短絡的といわざるをえない° この立場は、キャリア教育を就業の機会確保・拡大と直線的に結びつける考えでもある

キャリア教育の目的は、前述のように、生徒・学生に初等教育からの段階的、継続的な教育活動を通して、「社会的、職業的自立に必要とされる、望ましい職業観・勤労観および職業に関する知識や技能を身に付けさせるとともに、自己の個性を理解し、主体的に進路を選択する

能力・態度を育てる」ことにある。したがって、生徒や学生は、学校卒業後の自らの進路選択にあたり、将来の社会的・職業的自立を展望しながら、適切な判断と決定を主体的に行いうるような能力を、学校での全教育活動を通して段階的・発達の的に形成しているかが、キャリア教育の成果をめぐる評価として問われることになる。この観点から、キャリア教育の成果を検討する資料として、2009年に学校卒業後の進路として就職を志向している高校生を対象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の回答を以下に示そう。

表 8 就職を選択決定した主な理由

	比率	男	女	工業高校	商業高校	農業高校	普通高校
進路指導を受けて決めた	16.9	18.3	14.0	16.6	18.1	8.7	21.1
職業人に早くなりたい	60.4	65.1	54.0	58.7	64.3	66.4	55.0
卒業後は勉強したくない	49.1	50.0	48.3	52.3	48.8	50.0	43.2
希望職種に早くつきたい	30.1	31.2	28.6	36.4	24.1	23.1	30.9
家計を支援する必要から	44.5	37.7	54.0	36.8	42.7	47.1	58.7
収入を得て好きに生活したい	67.1	68.8	64.8	70.3	71.4	62.5	
職業安定所等の説明を聞いて						2.9	3.1
卒業生の職場体験を聞いて	6.4	6.7	6.0	6.0	7.1	6.7	6.2
インターンシップに参加して	2.6	2.8	2.2	1.1	2.0	4.8	4.3
その他	5.5	3.2	8.6	6.4	3.5	6.7	5.6

※ 資料：不破「高校生の就職へのアプローチと教育的支援 協力」，2009

就職を自らの進路として選択された理由は、「希望する職種の確保と職業人としての自己成長」「経済的自立ならびに家計への経済的支援」そして「学校教育からの離脱」に大別できよう。「職業人としての早い自立志向タイプ」は男性、工業高校、農業高校、商業高校で高い。特に、工業高校に関しては、「希望する職種に早く就きたい」と自らの就業について明確で、具体的な内容や方向性をもつ生徒が多く見受けられる。また、「経済的な自立志向タイプ」では、女性、普通高校で高くなっている。

一方、教員による進路指導、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による職場体験活動、職業安定所職員や

企業担当者などによる説明会は、生徒の進路指決定にあたって積極的な動機づけや誘因として教育的な成果をあげているようには指摘しがたい。高校は生徒の卒業後の就職を含む進路選択に関する教育的指導（キャリア教育）に取り組まれている現状を考えると、「教員による進路指導」が生徒の進路決定の要因として低い数値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に注視したい。

表 9 学校が行う就職指導の成果

	比率	男	女	工業高校	商業高校	農業高校	普通高校
働く意味や意義を学ぶ	37.7	39.5	35.2	38.5	40.7	34.6	34.6
試験対策など事前準備の仕方	54.8	56.1	53.0	55.1	52.8	60.6	53.1
職業や就職先の選択の仕方	35.8	37.7	33.3	38.5	33.7	26.0	40.1
就職情報収集の仕方	9.2	10.2	7.9	8.1	12.1	12.5	5.6
求人情報の検索、見方	39.9	38.8	41.3	41.7	35.7	46.2	37.7
面接での言葉、対応の仕方	62.4	58.2	68.3	60.1	63.8	61.6	65.4
職場での人間関係への対応	25.8	24.9	27.0	27.2	32.2	20.2	19.2
職場での悩みの相談方法	4.6	5.3	3.5	5.0	5.5	1.9	4.3
特に役立ったものはない	10.8	11.8	9.5	10.6	9.6	13.5	11.1
その他	1.1	0.7	1.6	1.1	0.5	1.9	1.2

※ 資料：不破「高校生の就職へのアプローチと教育的支援、協力」、2009

高校が1年次から計画的かつ継続的に生徒にたいし取り組んでいる進路指導、就職指導をめぐって、生徒の評価は「面接での言葉づかいなど対応の仕方」「試験対策など事前準備の仕方」といった直接的かつ具体的に有用な内容で高い。若者の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て根源的に条件でもある「働くこと」はじめ「職種の選択」「勤務先の決定」、さらには「職場での人間関係」などについて考え、理解をもつことができた点は評価されているものの、前者を下回っている。また、「特に役立ったものはない」とする回答も全対象者の10.8%から指摘されている。

表 10 就職をめぐる悩みの度合い

	非常に悩んだ			少し悩んだ			どちらでもない			あまり悩まない			悩まない		
	比率	男	女	比率	男	女	比率	男	女	比率	男	女	比率	男	女
職業選択の基準	18.5	16.9	20.7	31.5	30.3	33.1	13.7	12.9	14.7	15.4	16.2	14.3	21.0	23.8	17.2
希望職業への就職	23.1	20.4	26.8	29.8	27.2	33.5	16.8	17.4	15.9	15.5	16.0	14.7	14.9	19.0	9.3
職業の自己適性	22.1	19.3	25.9	28.0	26.9	29.4	15.3	17.4	12.5	16.7	17.6	15.4	18.0	18.8	16.9
就職する実感	12.7	10.5	15.7	21.1	20.4	22.1	21.8	19.5	25.0	17.5	18.8	15.7	26.9	30.9	21.5
希望職業の決定	8.6	6.7	11.2	15.5	14.9	16.3	19.6	18.6	21.0	20.6	21.1	19.8	35.9	38.8	31.9
職業の情報	8.5	7.4	10.0	18.5	15.7	22.4	23.3	19.6	28.4	22.8	23.8	21.4	26.9	33.5	17.9
職業の選択	11.9	9.1	15.6	21.3	18.0	25.8	18.5	18.5	18.5	19.7	20.3	18.8	28.7	34.1	21.4
職場への適応	28.2	22.9	35.5	31.3	29.4	33.9	14.7	16.3	12.5	13.1	15.6	9.6	12.8	15.9	8.6
就職先の決定	13.0	8.6	19.1	19.5	19.0	20.1	19.2	18.5	20.1	20.4	22.7	17.2	28.0	31.3	23.6
職業決定への意欲	9.9	7.9	12.7	12.2	12.0	12.4	22.2	20.3	24.9	20.2	21.0	19.1	35.5	38.8	30.9

※ 資料：不破「高校生の就職へのアプローチと教育的支援 協力」，2009

高校生が就職活動に取り組む過程で直面する悩みの内容や度合いに違いはあれ、多くが悩んだ経験をもっている。悩んだ事柄としては、「就職できてもうまくやっていけるかどうか」（59.5%）、「希望する職業に自分は就職できるかどうか」（52.9%）、「将来の職業を選ぶさい、何を基準にすべきか」（50.0%）、「自分がどのような職業に適しているのか」（50.0%）が主なもので、それぞれ2人に1人、またはそれを越える生徒に及んでいる。職業選択にあたり自分の性格はじめ能力などを含めた適性の的確な判断や、自分の生活観、社会観、人生観などと係わる職業選択を行うさいの適切な価値基準を高校生が明確に自らのうちに形成することの難しさを示している。実は、このような進路をめぐる、高校生に必要とされる能力形成はキャリア教育の目標として掲げられていることを考えれば、その成果は期待にこたえる方向で発揮されるまでにいたっていないことを意味する。

高校生の多くが就職をめぐる直面する悩みや相談ごとをどのように解決しているのだろうか。「家庭で両親と話す」79.4%が最も多く、「クラス担当教員」51.3%、または「進路担当教員」29.8%となっている。両親との話し合いを求める傾向は女子83.3%、教員との話し合いは男子83.4%にそれぞれ高くなっている。一方で、「自分ひとりで考えた」54.3%

「同じ学校の友達や先輩と話し合った」53.2%とする回答も対象者の2人に1人を若干越えている。両者の数値は個別項目への回答率という点で、クラス担当教員および進路担当教員への回答率より高くなっていることを看過すべきではない。キャリア教育の一環として、生徒の進路選択・決定に、教員が適切な指導・助言を行う「進路指導」の充実が求められている。しかし、アンケート調査の回答からは、学校が個別的に生徒に適切な内容と方法で進路指導に努めているとは、これまた指摘しがたい。

7. キャリア教育の課題

(1) キャリア教育の概念および教育内容にかかわる課題である。キャリア教育の概念、意義、内容、そして方法、さらに学校教育、生涯学習に取り入れる時代的な意義などが具体的に示される必要性についてである。

① キャリア教育の概念や意義、ならびに教育活動などに関しては、2011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さらに文部科学省「学習指導要領」などに基づき、前述したところである。その内容を再掲すると、「一人一人の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必要な基盤となる能力や態度を育てることを通じて、キャリア発達を促す教育」であり、「特定の活動や指導方法に限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幼児期の教育や義務教育の段階から体系的に各学校段階の取組を考え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である(16頁)と説明されている。抽象度が高く具体性、現実性を欠いた説明内容とも言える。この点は、中央教育審議会答申が明示したキャリア教育の概念を、学校教育法で定められている中等教育(前記中等教育である中学校、後記中等教育としての高等学校を含む)の教育目標と対比することで、より確かになろう。

第六十三条 中等教育学校は、小学校における教育の基礎の上に、心身の発達及び進路に応じて、義務教育として行われる普通教育並びに高度な普通教育及び専門教育を一貫して施すことを目的とする。

第六十四条 中等教育学校における教育は、前条に規定する目的を実現するため、次に掲げる目標を達成するよう行われるものとする。

- 一 豊かな人間性、創造性及び健やかな身体を養い、国家及び社会の形成者として必要な資質を養うこと。
- 二 社会において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使命の自覚に基づき、個性に応じて将来の進路を決定させ、一般的な教養を高め、専門的な知識、技術及び技能を習得させること。
- 三 個性の確立に努めるとともに、社会について、広く深い理解と健全な批判力を養い、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態度を養うこと。

学校教育法でも、個々人の個性に対応した将来の進路決定、進路に必要な教養、専門的な知識や技能の習得、さらに国家、社会の形成者に求められる資質を養うことなどが、中等教育の教育目標として定められている。これらは、文言の表現として異なるが、キャリア教育が掲げる目標と類似した内容と言える。こうしたことがキャリア教育の考えや目標などをめぐって、教員に学校教育法で定められた内容と類似したものとの印象を与えるだけでなく、現行の職業教育や進路指導と同義的に解釈される状況を広く生み出す一因とも言える。こうした問題的な傾向は、文部科学省が学習指導要領改訂にあたりキャリア教育の今日的な重要性を強調的に述べ、児童・生徒に対する指導内容・方法を具体的に作成し、それに基づく学校での教育活動の実践を促しているが、期待された教育成果を達成する妨げとなっている。キャリア教育が単に名称としての新しさにとどまらず、時代社会が教育に求める今日的な課題に応える目標、内容、さらに方法などから独自の構築された、新たな教育活動であることについて、学校、教員、保護者、教育行政機関はもちろん広く国民、社会全体に理解を図る取り組みが急がれる。

② キャリア教育の考えや、学校教育、生涯学習で実施する時代的な必要性、意義などを具体的に示すことが課題とされる、もう一つの理由がある。

日本社会で、「キャリア教育」の用語は1999年中央審議会答申で公用語として初めて使われたが、「キャリア」の用語はそれ以前から既に使用されてきている。「職歴」を意味するものとして国民の間に定着していると言えよう。例えば、中央行政機関での「キャリア組」と「ノン・キャリア組」という表現に象徴されるように、高学歴者で中央行政機関の主要ポストに就任している、もしくは将来的に就任することが約束されているエリート官僚であるか、否かを意味する用語としての使われ方である。また、一般的には、企業および地方行政機関で

高学歴、職務をめぐる業績評価を主たる要因として昇進を重ねながら、組織体の中で高位ポストに就任している人びとに対して、「キャリアが良い」といった意味で使われることが主流をなしてきたと言える。こうしたキャリアという用語をめぐる一般的な解釈が、キャリア教育についても将来的に企業や行政機関で出世を勝ち取るために必要な知識や技能などを習得する教育として、人びとに受けとめられやすいことは否定しがたい。単純に言えば、職場でのエリート養成、出世組の養成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という解釈である。さらに、現在の若者世代が総じて出世への願望や欲求を積極的にもともしない状況にあっては、キャリア教育それ自体が多く若者にとって必要のないものとして、関心の外に置かれてしまいかねない。キャリアならびにキャリア教育をめぐる国民の中に定着している解釈、つまりエリートの教育であり、職場での社員、職員をエリートとノン・エリートへと選別する教育といった歪曲化された解釈を払拭していくことが、キャリア教育の理念とそれに基づく教育を推進していくうえで必須の前提条件である。

(2) キャリア教育の実態は就職の機会獲得のための指導内容・方法に傾倒し、社会人・職業人の自立を目指すキャリア教育の理念的な観点から言えば、バランスを欠いた状況にあり、その均衡の回復がキャリア教育の実施に求められる。

今日、キャリア教育の名称で、高等学校や大学で実施されている教育活動の多くは、就職に向けた進路指導、職業観の形成、職種・業種・業界の理解、自己アピールの効果的な方法、自己能力アセスメント、面談、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討論）での対応の仕方などを内容とするものである。就職のための準備教育とでも呼ぶことができる内容である。日本でキャリア教育の推進が必要とされた直接的な背景として、若者世代が直面する深刻な就業問題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キャリア教育が教育政策として文部科学省の主導のもとで実施に移される2000年代に入った時期には、政府が同時代の社会問題の一つである若者の就業問題の解決を目標に、「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を設置し、同会議で策定された「若者自立・戦略プラン」に基づく若者世代の就業問題の解決に取り組んできていることから、キャリア教育の中心が生徒、学生の就職機会の拡大に向けられ、そのために必要な指導が重点的に行われることは、きわめて現実的な方向性ともいえる。

しかしながら、2011年中央教育審議会答申がキャリア教育の考え方として、生徒、学生「一人一人の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必要な基盤となる能力や態度を育てる」と述べていることは、看過されるべきでない。社会的自立に求められる能力や態度の教育活動を介し

た育成が排除され、または軽視され、上述した就業機会の獲得のための教育のみがキャリア教育の名称のもとで行われることは、キャリア教育が本来的に目指す教育活動とは異なるものと言わざるをえない。人びとにとって社会的自立と職業的自立は切り離すことのできない一体的な関係にある。社会的自立とは、人びとが社会の一員として確かな地位とそれに伴う役割をもち、自分自身の、または他者との連携、協力関係を形成し、責任ある判断と行動で遂行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には、以下の条件を教育・学習、さらには社会的諸経験を通して習得していくことが不可欠である。

① 当該国家で国民としての地位に基づき、法的に授与された権利を行使し、自らの社会での役割である労働することをはじめ政治、教育、文化など社会の広範な活動へ参加すること（つまり、労働する権利の保持者にとって、仕事に従事すること、働くことは自らの責任ある義務である。したがって、“働きたくない”、“働こうとしない”ということは権利の放棄を意味することの理解を促すことが大切である）

② 民主主義の基本的価値観である自由と平等、人格の理解と尊重などを日常生活で自らの行動原理としながら、他者との間に民主主義的な連携、協力関係を形成、拡大しながら、民主主義社会の前進に参加すること

③ 地域社会で活動するボランティア団体、NPO、市民団体などに参加し、民主主義的な市民社会の前進に貢献する社会資本の一人として、自ら行動的市民への成長・発達をめざすこと、それぞれが期待される。

人びとの社会的自立に向けたこれらの基本的条件の習得こそが、幼稚園、小学校からの段階的な学校教育、家庭教育さらには成人教育などで継続的、体系的な教育活動を通して目指される重要な課題である。指摘するまでもなく、この課題は若者から成人への世代移行（社会または他者への依存から自立への移行でもある）にとっても最も基本的であり、また重要な条件であることを認識し、キャリア教育の実施にあたって積極的に取り組まれることが欠かせない。このことは、日本で政策として推進されているキャリア教育が、就職指導を内容とする活動にとどまっている現状から脱却し、理念に掲げる目標を達成するうえでの中心的な課題といえよう。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콜로키움 자료집

인 쇄 2012년 10월 18일

발 행 2012년 10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